

社說

재원 확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등록금 책정시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사립대학의 재정난과 더불어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등록금 책정시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학교당국과 학생들간에 등록금 인상폭을 놓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88년 등록금 자율화 시책 이후 해마다 대학을 더 깊은 위기와 진통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11월 전국사립대학 기획실장협의회에서 91학년도 등록금을 올해의 물가인상률을 감안, 15%~20% 인상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 학생들이 심한 반발을 보여 올해도 여전히 적잖은 폭락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모두는 사립대학 재정난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끼며 절실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우리대학을 포함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설립당시부터 열악한 교육여건속에서 시작한 한국의 대학교육은 그후로도 경제위주의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학교육의 역사를 되짚어 볼때 어제보면 오늘날의 재정난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한상 부족했던 재정난속에도 교육여건의 개선과 투자와 재원의 확보 등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만을 우선시 해왔던 기형적인 성장과정도 오늘날 대학 재정난의 한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외부의 지원금도 없고, 재원으로 부터의 전입금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 아래 교육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해 온 대학교육구조의 취약성과 그로인한 대학교육여건의 빈약성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빈약한 재

마지도 70%이상을 인건비에 충당하는 현실속에서 교육여건의 질적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에도 급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는 비단 학생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혜자라는 사실과 사립대학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비 전액과 함께 국세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립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재정지원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등록금인상만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는 당연한 것으로 재원확보 방법은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모든 사회구성원, 즉 정부와 사회를 포함해 대학교육과 학생의 부담이 적당하게 분담되어야 함은 재원확보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의 여건과 질적인 수준이 얼마나 뒤떨어졌는가를 우려한다면 이제는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느 한가지 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과 자구책마련의 책임주체는 학교당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90년... 그러나 희망찬 91년을 위해"

91년 새해를 맞는 경희인의 자세

대학의 겨울방학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귀중한 여유'가 바로 겨울방학이다. 대학이 항상 '살아 숨쉬는' 정의와 진리의 공간이듯이 대학의 겨울방학 역시도 결코 동면의 시간이 아니며, 일년중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자기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다.

91년을 맞이하는 오늘, 지난 한해를 생각해 보자. 90년의 벽두에 우리는 오욕의 80년대를 마감하고 대망의 90년대를 맞이한다는 기대와 환희에 희망찬 한해를 맞이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90년대는 그 시작부터가 80년대의 연장으로 고조되고 말았으며 우리들의 기대만큼 만족스러울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거대여당인 민자당이 탄생하였고, 독재권력의 非민주적인 장기집권유무가 논쟁적으로 행해지게되었으며, 대학내에서도 80년대 말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학원자율화와 자주권 쟁취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권력의 거대화와 학원자주에 대한 불이해·무관심으로 오히려 패배주의와 회의만을 느끼며 아쉬움으로 한해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90년을 평가하면서 결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물론 90년을 거치며 성숙된 전국민적 통일외지 확대, 전국 노동자와 농민 조직의 결성, 교과과정 심의를 통한 교육의 질적개선에 등 여러가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90년은 보람보다는 아쉬움, 만족보다는 허탈의 느낌을 더욱 많이 느끼게 한다.

이러한 아쉬움과 허탈의 근본이유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학생운동이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

며, 뿐만 아니라 학내 자주권쟁취에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대학의 자율권·자주권 쟁취는 결코 일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개인의 유기적인 결합과 관심으로 가능한 것임에도, 우리의 지난 한해는 국도의 개인주의와 무관심주의로 인해 결국 전체가 공유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남의 일'이 되고 말았다.

'90년'이라는 부실했던 한해는 결국 '91년'이라는 부담의 한해를 우리에게 짊어 주었다.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91년을 희망에 찬 역사로 일구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겨울방학에 두가지의 일을 해야 한다. 우선 애국하는 주체로서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방학중에 여러가지 사회현상을 통해 독재권력의 반민주적 정책과 非민주적 유무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91년에 완전한 대학자율화와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경희인은 학교에 대한 사랑과 주인정신을 다시금 확인 해야 할 것이며, 새로 출범한 학생회 조직은 이전까지의 사업을 계승하고 혁신과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인수인계 작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91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희망의 역사를 일구어나갈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며, 독재권력의 독선을 견제하여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기는 일과 대학의 자율과 자주권을 쟁취하고 정립하는 일에 주저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총장 신년사



총장 조영식 박사

희망과 서기가 어린 辛未年의 새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경희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참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수 많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있었습니

전후의 남진체제는 서서히 그 종말을 고하고 동서이념분쟁의 한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분단독일이 통일의 벅찬 감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 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총리가 자리를 함께 하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궁극적인 조국통일을 향해 단결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화해와 대화의 문을 열었던 것은 꼭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

이러한 국내외의 격변의 와중

개교 42주년을 맞는 금년은 우리 모든 경희인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의 영광경희를 바라보며 대학중의 대학, 세계속의 대학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하여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화, 조직화, 분권

틀림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이는 오로지 모든 경희가족의 하나된 단결의 힘과 화합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41년의 역사를 통해 익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의지는 역경을 뚫고 이상은 천국을 낳는다"는 우리 경희 특유의 생활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2천년대의 위대한 경희역사를 바라보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로매진하는 의욕의 대열에 모두 동참하여 역사의 장을 여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도 모든 경희인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창시인의 가르침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영광 경희' 위한 착실한 발걸음

격을 안았습니

또한 동구의 공산제국에 붙여 단친 민주화의 바람은 이제 제3민주주의 혁명을 바라보며 그 앞

국내적으로, 계속되는 민주화

속에서도 우리 경희는 경희가족

모두의 화합된 힘으로 여러 어려움에 극복하고 학원의 민주화는 물론 21세기의 영광경희를 이룩하기 위해 착실한 발걸음을 계속하여 왔음은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화를 보다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희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제2의 의료원의 건설 등 제반 건설목표를 차질없이 완수해야할 중대한 소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난제임은

辛未年 맞는 경희인의 다짐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신춘에 세운다(一日之計在于晨, 一年之計在于春)' 새벽에 그날 할일을 생각하고 신년을 맞으면서 한 해의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많은 경우 그 계획이 완전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일이 부질없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삶에는 리듬에 따른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춘음을 아끼고자 하는 필자도 신마년에 할 일들을 벌써 욕심껏 구상해 보았다. 올해는 그동안 연구해 온 한 주제를 가능 하다면 책으로 정리하고 싶다. 중국철학을 공부하는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공동체 사상'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고대의 대동사상으로 부터 현대의 손문이나 모택동의 사상에 이르러가지 다양한 대상이 연구되어

야 하겠지만, 필자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맹아가 되었다고 말하는 명대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송대의 이지적인 사대부 사회의 분위기와 달리, 서민적인 대중문화가 크게 발달한 명대는 역사적, 사상사적으로 매우 흥미가 가는 시기이다. 자본주의적 맹아의 토대에 상응하여 사상에 있어서도 근세적 맹아가 발생한 다. 개인의 주체성과 실천을 강

노동자 출신의 왕조,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이단으로 몰리어 처형당하거나 자결한 何陋·李卓吾등 이른바 양명좌파의 일부 사상가들로부터, 우리는 관학화 된 주자학에서 볼 수 없는 다이내믹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공동체적의식에 있어서도 이들에 오게 되면 관학의 정치적 입장을 벗어난 새로운 양상을 보게된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이 필자 나름의 해

불과 몇개월전에 시작되었 같은 '90년대 뚜렷하게 한 일없이 벌써 '9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새 91년'이라는 대학 재학 시절 '교수님'의 말씀이 새삼 피부에 와 닿습니

新年에는 앞날 계획을 설계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지라는 각오를 스스로 해본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

첫째, '개인의 발전은 본인 스스로가 이루어 내야 한다'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현재의 여건이 어떻든간에 누구나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면 노력한 만큼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할수 있으며 또한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인의 발전은 경희의 발전을 이루어내며 경희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으로 feed back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탁월한 강의나

91년은 자아실현의 해로

연구성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계 등 해아릴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어우러져 상호상생작용(相互上生作用)을 일으켜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주된 원동력은 역시 학생을 개개인의 노력이며, 따라서 너나 할것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 애쓰는 1991년이 된다면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경희가 비로소 크게 도약하는 전기를 맞이하며 수년래에 그 결과 가 우리모두의 힘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

끝으로 구약성서의 한 귀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합니

'아침부터 세를 뿌리고 저녁때까지 손을 쉬지 말아라. 이것이 썩을지 지 것이 썩을지 혹은 모두가 썩을지 누가 알겠는가? 바람이 부는 가 불지 않는가를 살펴다가는 세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두지들

조 병 준
(수원캠퍼스·학생처)

연구결과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

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양명의 후학들은 한편으로 반권위주의적 태도에서 개성해방을 존중했으며, 다른 한편 '사민평등(四民平等)', '이업동도(異業同道)' 사농공상이 가능한 달라도 화문은 같이 한다는 이상적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재야에서 활동한 학자들이 그것을 주도했다. 영장

고사하고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해마다 아쉽다.

새해의 벼두이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새로운 각오를 해본다. 올해에 경희인 누구에게나 큰 포부가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김 수 중
(문리대교수·중국철학)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일년전 새해 첫날에 계획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린다.

늘상 그러하듯 한해를 마감하는 송년의 시간들을 망년의 세월로 보내지 않기위해 얼마만큼 노력해왔는가 지난 12장 달력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흔적은 얼마나 새해를 앞차게 할 수 있는가.

지난날의 후회와 반성은 새해가 되면 오기로 변해버렸고 오기는 한해에 대한 꿈을 갖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력도 없이 꿈을 꾸는 몽상가로 그쳐버린채 매년 참담한 새해를 맞이하고야 말았다.

새해의 결심이 12월이 되면 반대 자편에 서있고야마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계획들.

삶은 곧 자신의 책임이며 자신의 인생이며 자신에 의해 선택되

고 결정된다는 단순명쾌한 명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또 다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누군가 청년은 가슴 뜨거운 정열과 냉철한 지성 그리고 부지런한 팔과 다리를 소유한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청년은 삶에 대한 모험과 도전을 아끼지 않는 굳은 의지의 소유자인지도 모른

다.

매해 봄이면 교정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꽃의 생명력을 부러워했고 꼭 '중간고사' 기간에 생과 死를 다하는 교신탈 복원꽃의 아쉬움을 간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힘은 역사속에서도 살아숨선다. 하루하루를 역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역사소명의식으로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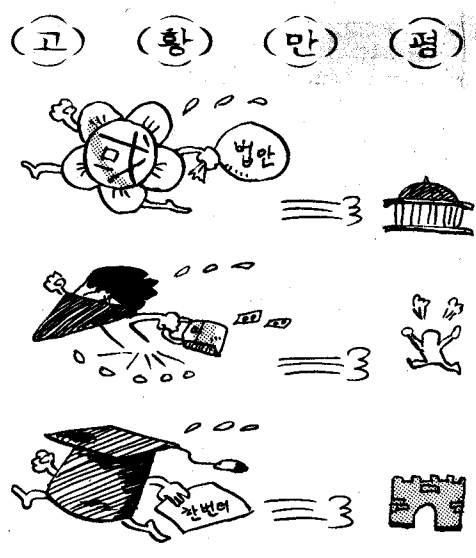
아들에게 되는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역시 역사의 시간과 공간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한다.

새책이 돌아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을과 겨울 그 혹독한 고난과 좌절을 경험한 후에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의 시기 에 눈비와 거친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터득하고자 발걸음을 내딛는다. 지난해와 같은 올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나 자신도 밝고 푸른 하늘의 새아침을 당당히 맞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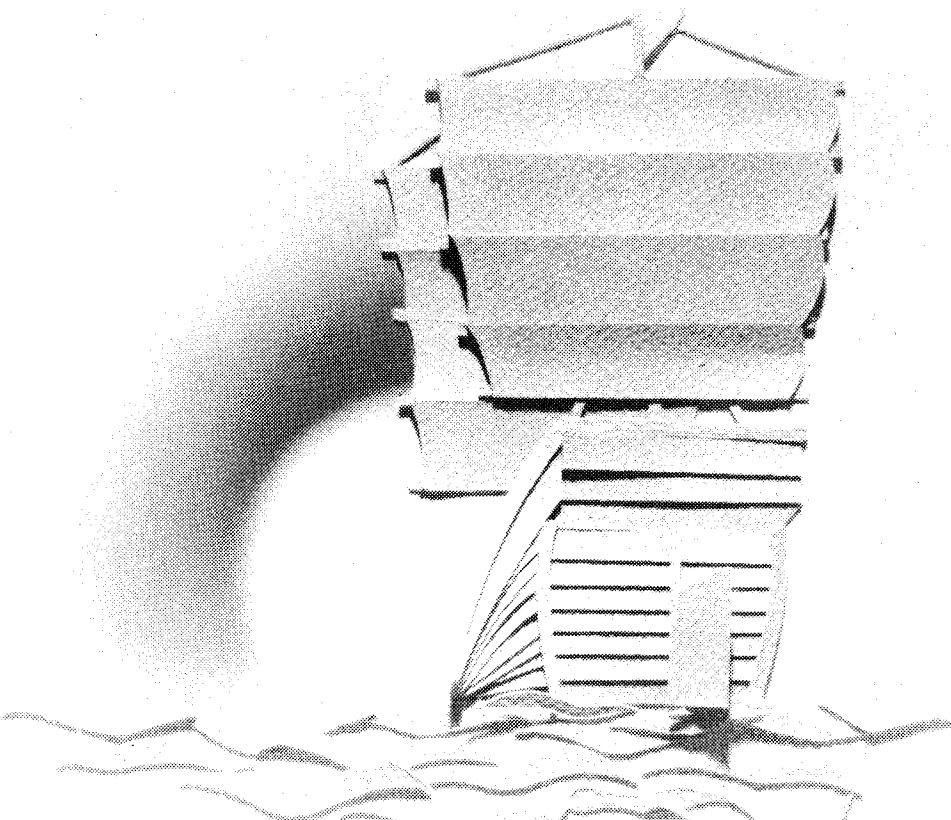
박 기 태
(정화·2)

올해에는 삶의 용기를 터득하고자



'날치기 세상'

근 하 신 년



새바람 안고 떠나는 새해 새바다

새해는 뜻을 보다 높이!
새바람 큰바람 안아
더 멀리 떠나자.
그래서 더 많은 보람
실어 돌아오는 '91년이
되도록.
더 높고 넓은 뜻을 달자.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